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따른 도시경관 색채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lor Design of Urban Landscape
Associated with Activated Public Design

주저자: 송광철 (Song, Gwang Cheol)

광양보건대학(산업디자인과)

공동저자: 이몽룡 (Lee, Mong Ryong)

동강대학(산업디자인과)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II.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색채

1.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영역
2. 공공디자인의 현황과 경관색채의 정의
3. 경관색채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

III. 도시경관색채 디자인의 기본구성과 국내외 사례

1. 경관색채의 기본 구성과 활용
2. 도시경관 색채의 국내외 사례

IV. 결론

참고문헌

(Key word)

Public design, urban landscape, color design

논문요약

현재 공공디자인 활성화로 우리나라의 도심 경관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또한 공공디자인 일환으로 진행되는 간판의 색채정비는 그러한 의식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도시의 경관색채를 아름답고 개성 있게 만드는 일은 사람의 움직임, 공간의 역사, 도시구성의 특징, 지형, 문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고려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도시색채를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는가에 따라, 도시가 즐거운 표정이 될 수도, 우울해 질 수 있으며, 쾌적해 지기도, 외로워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도시경관색채는 어느 한쪽만 편중되게 다루어서도 안되고 도시경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도시 이미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정비를 위한 기술을 요구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도 경관색채디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경관의 일부 요소에 대한 색채 디자인만을 지칭하는 견해가 있으나, 외관 디자인에 대한 작업 이외에도 경관 색채를 관리(도시경관색채 프로세스)하고 지도하는 것(도시경관색채 매니지먼트)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분야이고 작업에 있어 경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색채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고 경관색채디자인의 기본구성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current activated public design, urban landscape of Korea has made rapid progress. Color coordination of signboards carried out as a part of public design is a clear example of such change of consciousness.

Making color of urban landscape beautiful and unique is very sensitive work which should consider human's movement, spac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formation, topography, culture,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ity.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urban color, the city may have happy, gloomy, comfort, or lonely expression.

For this reason, urban landscape color should not overemphasize one side and requires to assess urban landscape exactly and have a long-term standpoint and coordination technique. Furthermore, in understanding landscape color design, some still tend to consider color design only for some elements of landscape. We should understand that in addition to exterior design work, it is a broad field which covers the management(process of urban landscape color) and guidance(management of urban landscape color) of landscape color. Furthermore, we need to see landscape from a holistic standpoint in the work.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public design and color design of urban landscape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n the basis of basic composition of landscape color design and foreign cases.

1. 서론

1. 연구목적

우리사회에서 주류를 이루어 왔던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은 물리적 환경의 건설을 상대적으로 중시한 나머지 인문 사회 자연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못함으로써 점점 복잡해져 가는 현대 도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 우리 주변에는 문화적 독자성을 상실한 무국적도시가 보편적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모든 도시가 유사한 건축양식과 색채, 거리의 모습을 띄게 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고유한 매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독자성의 상실과 획일성의 만연은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현재 공공디자인 활성화로 우리나라의 도심경관은 10년 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것은 개별 건물만이 아닌 도심경관 전체에 있어서도 거리경관의 정비상태나 녹지공간의 확대, 전통적인 경관요소의 보존과 상가의 간판정비 등 이전에는 당연시 여기던 열악한 경관이 점차 개선의 틀을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관색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 도심주거의 대표적 요소인 아파트 색채의 경우도 고채도의 그래픽이 난무하고 주변환경보다는 아파트 브랜드만을 부각시키던 이전에 비해 저채도의 색상과 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한 색채디자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디자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간판의 색채정비는 그러한 의식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도시의 경관정비는 도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효과가 발휘되며 체계화되지 않은 정비는 새마을 운동과 같은 획일화된 경관을 만드는 또 다른 폐해를 양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따른 도시경관 색채디자인에 대해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제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구성

자신이 살고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한걸음 밖으로 나가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으로 생활환경은 변화된다. 누구나 사적인 공간 조성에는 신경을 쓰지만, 공공의 공간에 대해 그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도시경관 색채에 대해 간판정비 사업, 도시 가로환경 개선사업, 공공디자인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경관색채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와 같은 획일화된 경관을 만드는 문제를 예방하고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색채 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함께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관계획을 지역차원으로 확대시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연구방법으로는 자료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념정리와 방향설정을 하였으며

논문의 구성으로 서론에서 연구목적과 방법 및 구성을 설정하였으며 본론에서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색채의 개념과 영역, 현황과 정의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논제에 따른 결론 도출을 위해 도시경관 색채디자인의 기본구성과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II.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색채

1.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영역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서부터 사회생활을 합리적으로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고, 기능이 한층 분화된 다세대 사회가 발생되면서 개인적인 생활의 장과 병행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여러 장치나 장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해야만 하였다. 여기에서 공공디자인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공공디자인에는 먼저 건축물과 도로, 운하, 주거환경에 필요한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환경적 시설'이 있다. 이 환경 시설에 대응하여 도로상의 여러 시설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개의 디자인은 물리적 기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적 환경의 한 요소로서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적절한 디자인과 배치는 생활 속에서 질서를 주고 부적절한 배치는 당연히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국민 생활의 질이 높아질수록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기능과 효율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했던 기존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재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은 공공시설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국가는 공공시설을 얼마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를 따르게 분명하고 그럴 경우 시장은 예상보다 더욱 커질 것이다.¹⁾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는 모든 인공물이 공공디자인의 대상이지만 그 내용을 대별하면, 공간, 사물,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공의 공간, 시설물·시각매체가 된다.

첫 번째, '공간'영역에 속하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각종의 가로와 도로, 거리와 골목, 공원, 경찰서,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 유아원과 같은 보육시설,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놀이터, 근린상가와 시장, 나아가 리조트, 공항 등으로 그 전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요소의 디자인을 모두 포괄한다.

1) 고희중, 거리환경디자인, 미진사, 1997

두 번째, '사물'의 영역에 포함되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은 휴게시설, 위생시설, 조명시설, 정보시설, 교통시설, 수경(水景)시설, 관리시설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집기과 도구, 나아가 경찰차량, 경찰제복,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제복, 청소용구까지도 이 영역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세 번째, '이미지'의 영역에 속하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는, 가로표지판, 간판, 자동차번호판, 나아가 공공기관의 각종표지, 서식 및 증명서, 여권 등과 같은 시각전달 매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이미지 영역은 빛 색과 같은 매질(媒質)을 통하여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생태학적 건강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시각적 조정 작업을 포함한다.

이렇듯 공공디자인은 공중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괄하며, 특히 국가와 도시의 인프라에 깊이 관계되어 있다.²⁾

2. 공공디자인의 현황과 경관색채의 정의

단조로운 거리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 거리로 변모되는가, 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다면 광화문에 나서 볼 만하다. 서울에서 가장 넓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볼 것'이 없었던 광화문 거리는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

이 변화는 비단 청계천과 시청에서 이어지는 화려함의 연장선에서 설명되는 것만은 아니다. 서울의 핵심 공간이라는 '공간성'과 조화를 이룬 미술작품이 거리에 디자인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복원, 그리고 광화문거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계획은 공공디자인 측면에 있어서도 고무적이다. 그 첫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화문 철거/복원 공사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붙든다.

또 북적대는 만큼이나 지지분한 거리로 악명을 떨치던 종로 골목에 등장한 피아노건반 거리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으로 서울시내의 대표적인 '건고 싶은 거리'로서의 명성을 간직하고 있는 정동길 또한 각각의 공공디자인의 일례로 꼽힐 만하다. 거리에 등장한 거대한 피아노 건반 설치물이 종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음을 부인할 이는 없을 듯하다. 늘 정제된 듯한 고요한 거리 정동길도 문양이 들어간 타

2) the design NET 2006. 04. Vol.103 pp64-75

일을 길에 새겨 넣는 등 디테일한 디자인을 조금씩 보태고 있다.

청계천은 관에서 주도하는 공공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가늠케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복원 발표 초기부터 불거져온 많은 갈등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디자인부문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지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고심해 볼 만한 내용들이다. 진정한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는 점과 좁은 수로 등의 문제점들은 청계천 복원이 여전히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디자인은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디자인의 수준을 드러내주는 잣대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의 디자인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청계천 디자인은 여전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³⁾

자연경관색채+인공물의 색채를 경관색채라 하는데 우선 경관색채, 환경색채 등 환경디자인 영역에 사용되는 이 두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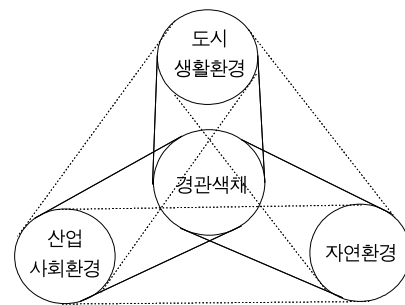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환경색채는 ‘인간과 생물을 둘러싼, 관계성에 의해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간, 즉 인간의 시각, 운동, 생활을 전개하는 일체의 공간에 대한 색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 도시, 공장지대, 휴식과 업무공간, 학교, 놀이시설 등의 자리를 포함하는 공적, 사적 공간의 색채’이고, 환경색채 디자인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색채를 통해 공간목적에 맞는 색채선점, 배색패턴의 작성 공간형성을 통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분야이다.

3. 경관색채 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

경관은 무엇인가를 보는 시각적 행위를 칭하는 개념이기에 ‘보이는 환경’ 즉 ‘인간의 미학적 관심을 수용하는 일체의 지역의 지리적, 생리적, 문화적, 시각관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경관은 단순히 보여지는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대상을 바라보며 인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환경보다는 시각적인 범주라는 면에서의 하위 개념에 속한다. 그래서 환경색채와 공간색채의 개념의 사용은, 그 작업의 성격이 어떤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시각적인 환경의 색채디자인

인 작업은 ‘경관색채’가 적당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경관색채’는 도시와 자연경관의 색채를 말하며 풍경속 인공물의 색채를 주로 취급한다. 색채는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 있어 인간경험의 축적, 문화형태에 따라 특정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전개, 변화한다.

또한 색의 향상성과 같은 심리적으로 축적된 고유의 색채문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경관에 어울리는 색채는 그것을 인식하는 문화의 수용력, 이해력, 그리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소재, 기술과 밀접히 관계하며 그것에 따라 각 지역은 다른 경관색채를 형성하고 인지 가능한 공간으로서 형성된다.



<그림 1> 도시경관색채의 개념도

따라서 어떤 공간에 적합한 아름다운 경관색채는 필연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경관색채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하는 등 주변과의 조화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대상이 될 장소의 지역성과의 조화, 자연풍경과의 조화, 거리풍경과의 조화, 건축양식과의 조화, 형태와 소재, 크기, 용도와의 조화 등 일체의 요소를 조화의 축으로 고려하여 경관색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도시의 색채를 단순한 물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기후, 풍토, 지역특성, 역사,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시각환경의 중요 요소로 취급하는 관점이다.

현대의 도시경관 색채에 있어서도, 자연환경을 포함한 주변환경과의 조화는 필수적이기에 도시와 색채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경관색채에 무엇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풍토이다. 풍토는 어떤 토지의 기후, 기상, 토질, 지형, 경관 등의 총칭이다. 인간은 땅위에 발을 딛고 있기에

3) www.naver.com

토지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자연환경의 각각을 자연현상으로서 관찰해, 나아가서는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러한 풍토의 조건 위에 인간의 감각이 공통으로 느끼는 기반이 있고 이것이 반영된 것이 소재이고, 그 속에는 각각의 속성으로서 색채가 있고 소재마다 색채의 폭이 있다. 소재는 자연, 가공, 인공소재로 분류되고, 인공소재는 폭 넓은 색채표현이 가능한 고유의 색채도 있으나 자연소재, 가공소재는 한정된 색채만이 있다. 이처럼 경관색채는 소재가 가진 폭과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관소재의 경향을 아는 것은 색채경관을 인식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 그 외에도 경관색채에는 많은 관계요인, 요소가 존재한다. 경관을 구성하는 것에는 각각의 형태, 수치, 소재속성이 있으며 또한 색채의 사용법, 경관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등으로부터 이 속성에 관한 요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관색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아래와 같은 4가지의 대표적인 요인이 있다.

1) 지리적 요인

색채환경에 관계하는 지리적 요인은 위치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 도시의 입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각 지역은 위도의 특징이나 태양광의 입사각도에 따라 공기의 층을 통과할 때 빛이 크게 변화되고 그것은 지역 고유의 색채감각을 유발한다. 문화적인 지역색도 이것을 기본으로 만들어 진다. 또한 색채에는 인간의 심리적 기능이 있어 따뜻한 색은 따뜻하게, 차가운 색은 차갑게 느낀다. 그 결과 추운 지역에서는 따뜻한 색채를 무더운 지역에서는 차가운 색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의 한란의 차이에 따른 변화는 시각적인 부분만이 아닌 경관구성요소의 기능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지형 역시 경관의 기초가 되는 도시구조와의 관계가 깊고 인간의 인식에 크게 작용한다.

2) 시간적 요인

시간적 요인은 주야의 시간변화에 관한 것과 계절의 변화에 관한 것, 오랜 시간경과에 관한 것의 3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또 기상의 변화도 이런 시각의 변화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3) 사회적 요인

도시에 있어서 경관색채를 만들 경우 사회적인 요인은 큰 영향력을 가진다. 사회적 요인을 크게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는 인간본연의 문제로 직결되기에 많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에서는 그만큼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경관을 정비하는 등의 활동은 경제 활동에 깊이 관계하는 행위로서 도시경관은 경제적 문제에 제약 받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그러한 문화에 관한 요인도 도시의 기능과 색채의 사용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색과 소재에 관한 습관을 형성하고 경관구성요소가 가진 이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4) 면적

색 그 자체에는 크기가 없지만 색을 지닌 물체의 면의 크기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인다. 크기는 그 대상물의 속성이지만 우리들이 대상물을 다양한 거리에서 보기 위해 망막상에 연결된 크기는 거리에 의해 변화한다. 따라서 색채학에서는 크기를 정의 할 때는 물체의 크기만이 아닌 망막상에 비치는 상의 각도로 표시한다. 이 망막상에 비친 각도를 일반적으로 '시각'이라고 부른다. 4)

III. 도시경관 색채디자인의 기본구성과 국내외 사례

1. 도시경관색채의 기본구성과 활용

경관색채디자인의 기본구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원경색과 중경색, 근경색, 근접색 4단계로 분류된다. 이 4단계의 색채를 보는 방법은 소재 느낌에 민감한 경관에 있어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중경이상의 레벨에서는 소재는 거의 의식되지 않고 건물은 색의 집합체로만 인식된다. 이러한 경관색채를 구성요소별로 나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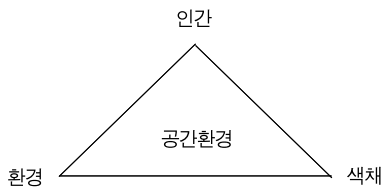
기조색(Basic Color), 주조색(Dominant Color), 배합색(Assort Color), 강조색(Accent Color)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이것은 색채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고 경관에서는 완전히 일치하는 적용법은 아니나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4) The design NET 2007. 04 VOL.115 pp90-92

5) 색채조화의 성립조건 (재) 일본색채 연구소

전체 배색을 작성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해서는 면적, 형태와 같이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액센트 컬러의 경우 사람에게 강한 전달력을 가지므로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 적은 면적에 효과적으로 발휘된다. 경관색채의 구성은 환경의 포함범위나 공간조건, 구획의 구분에 따라 자연경관, 도시경관, 지역경관, 외부경관, 내부경관의 색채로 구분된다.

그 속의 주민, 그룹, 단체, 지역, 사회, 도시 등과의 각각의 지리적, 문화적 특징이 존재하고, 그 안에 다시 건축과 색채, 사람, 자연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는 구체적인 환경조건, 환경형태, 환경스케일, 환경의 질을 나타낸다. 경관은 이러한 배경에 사람과 물건이 생활상과 상태가 조합된 공간이며, 경관색채 디자인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시점의 위에 다양한 관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림2)



<그림 2> 인간 환경 공간 색채의 관계

도시의 경관이미지는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화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느껴지는 색채이미지의 조화의 정도는 도시 구성요소들의 색채적 밸런스 관계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색채에 있어 조화의 척도는 전통적인 도시의 미에 관한 평가척도와도 유사한 '변화속의 통일의 정도'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색채가 일정한 시각적인 균형을 유지할 때 흔히 '아름답다'라고 느낌을 전달하는 경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관색채에 있어서 조화는 어떤 지역의 연속적인 구성요소의 복수의 색채와 그것과의 시각적 연계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력을 가진 배색에 의해 쾌적함을 가져오는 색채적 질서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화로운 경관색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살펴보자. 외부의 경관색채는 다양

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특히 경관의 색채는 시야 속에서 망막 크기의 문제를 비롯하여 자연의 변화에 따른 색채의 변화, 또한 소재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그것을 보는 관찰자의 심리적, 생리적 요인과 지역에 따라 문화적 영향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관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색채분야에 반영하는 것은 색채조화의 관계설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공간의 색채는 기본적으로 지역성과 필수 불가분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경관색채의 지역성과 관련된 요소로서는, 형태, 크기-면적, 배치-장소의 특징, 풍토-지리적, 문화적 특징, 소재 등이 있다. 특히 색채와 풍토의 관계는 어떤 지역의 색채를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색채에 관한 의식과 자연조건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색채의 지역차를 가져오는 요인은 이하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1) 기온의 요인 지역에 따라 기온의 한란의 차이는 지역거주민들의 생리심리적인 반응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온에 따라 한란의 적응방식이 색채 감각기능을 통해 기호심리에 직결되어 공간의 색채문화 형성으로 이어진다.

2) 습도의 차이 지역에 따른 습도의 고저의 차는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밀도차를 일으켜, 사람의 시각심리의 변화를 가져온다. 결국 고습도의 지역 경관과 저습도의 지역경관의 어느 쪽에 익숙해져 있는가에 따라 '채도차'의 기호심리가 좌우된다.

3) 일조시간 푸른 하늘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역과 구름 낀 날이 많은 지역은 자연조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사람의 시각은 '명암 순응'이 발생한다. 이러한 순응은 '명도차'의 기호심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4) 토양의 색 지역에 따른 토양의 색채와 성질의 차이는 건축 소재의 차이를 가져오고 사람들의 시각습관에 미묘한 주조색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러한 4가지 요인은 비교적 우리들의 생활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이며 각각이 단독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생활환경이 크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일종의 '풍토 쇼크'를 체험하는 것과 같이 색채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움과 새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외국의 경관을 접했을 때

새로움을 느끼는 것도 몇 번을 반복하면 그 쇼크가 완화되는 것도 이러한 풍토의 차이를 가져오는 환경요인의 영향이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색채는 환경조건과 밀접히 연관을 가지며 특히 풍토, 색채에 관한 문화의식은 조화로운 경관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경관 색채디자인의 국내의 사례

국내의 도시경관 색채의 사례를 통해 경관색채의 관점을 정리하고 조화롭고 개성적인 경관색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화로운 경관은 기본적으로 색채의 연속성을 요구한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조화로우면 미적으로 탁월한 경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국내의 사례를 보면서 문제점과 방향을 찾고자 한다.



<사진1>서울 인사동의 거리 풍경

<사진2>서울 시청 앞의 풍경



<사진3>아파트 단지 풍경

<사진4>서울시내 풍경

국내 도시경관 색채를 보면 지리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적인 여건과 봄에는 황사현상, 연름엔 장마로 인한 습한 기온과 무더운 날씨 사각형태의 구조물, 스모그 현상 등등 색채의 무분별한 계획 또한 빼 놓을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의 크기와 색채 또한 문제점으로 등장된다.

즉 조화로운 도시경관 색채를 이루는 방해요소들이 규제없이 설치되고 관리된다는게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저해요소가 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 사진들은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과 일본의 도시경관정비가 잘되어 있는 도시의 중심거리 풍경이다. 거리 곳곳에는 고채도의 색상을 가진 상징적 조형물, 보도, 다리, 표식이 있으나 어느 것도 전체의 경관특징을 해치는 일이 없이 조화되어 있으며 색채의 연속성을 보면 채도의 색상은 다양하나 명도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5)



<사진5> 독일 튜빙겐의 중심거리

포츠담과 슈튜트가르트 중심가는 지역 소재의 통일성과 더불어 약간의 색채변화가 있더라도 YR계통 색상의 주조색을 통해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진 6, 7)



<사진6> 독일 슈튜트가르트 중심가

<사진7> 독일 포츠담의 중심거리

가까운 일본 전통도시의 정비에서도 건축양식만이 아닌 벽면과 지붕, 문 등의 요소에 지역의 색채조사 결과에 의한 자연색을 반영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살려 나가고 있다. (사진8, 9)



<사진8> 일본 치바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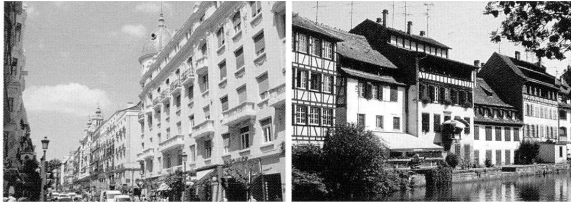
사와라시의 중심거리

<사진9> 일본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의 중심거리

6) The design NET 2007. 04 Vol. 115 pp.93-95

경관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개성있고 매력적인 곳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작은 부분들이 적절한 색차에 의한 변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경관색채의 리듬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0, 11)



<사진10, 11>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중심거리

연속적 통일감과 더불어 개성적인 경관을 위해서는 작은 부분의 색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변화가 없고 통일감이 높은 경관이라도 작은 공간의 색채 변화를 통해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사진 12, 13)



<사진12> 스페인 마드리드의 중심거리

<사진13> 독일 스투트가르트 회화관입구

도심주변의 자연공간은 색채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녹색은 그 자체만으로 사람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주며, 정기적인 관리만으로도 개성을 가져오는 훌륭한 요소이다. 사진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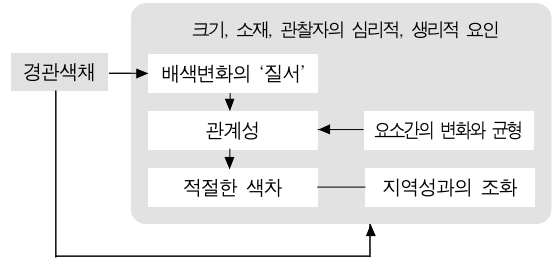


<사진14>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시내

<사진15> 스투트가르트의 광장

이 모든 사례를 통해서 색채의 연속성(Sequence), 리듬감(rhythm), 다양성(Variety) 그리고 자연과의 소재(Nature=Material) 조화를 어떻게 조절 하는가에 따라 분위기의 즐거움, 차가움, 조용함 등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여기서 도시경관색채의 이미지에 관계하는 요소는 <그림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그림3> 경관색채 요인의 관계도 7)

IV. 결론

우리나라의 주요도시의 경관을 살펴보면 지역성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어디를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들고 한 거리 안에서도 건물과 건물들 간의 조화적인 배려는 새롭게 진행되는 신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정도이다. 물론 신도시 역시 지역 개성의 반영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구도심에 대한 특화거리에 대한 정비도, 서울의 예를 보면 인사동 정도가 개성적인 공간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색채의 미는 없어지고 소프트웨어적인 재미거리만 넘치는 곳이 되어있다. 도시, 해안, 산간지역, 농촌의 구분 없이 아파트의 색채는 변함이 없으며 개인주택을 비롯한 건물들의 색채는 통일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70~80년대에 급격히 늘어났던 붉은벽돌의 주택들이 정겹게 느껴질 정도이다. 여기에는 외부공간의 소유개념에 대한 의식차의 영향도 크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도시들의 경우 외부 공간은 개인소유라도 공공의 소유로 인식하여 철저한 규제와 관리로 색채를 컨트롤하는 반면 국내는 한정적인 조례가 있기는 하나 경관의 색채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규제가 많지 아니하고 아직도 외부 공간이라도 철저하게 개인소유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또 큰 문제는 외부공간 정비에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전통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경관을 관리하는 유럽의 경우, 각 지역마다의 독특한 색채가 존재하고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기준색에 대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전통적인 미관

7) The design NET 2007. 05 Vol. 116 pp.84-89

자체가 새마을 운동 이후 상실된 상태에 가깝기에 어떠한 색을 기준으로 외벽을 정리해야 할지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지역에 따른 경관 차별화 전략, 특화거리 정비 등과 같이 삶의 경관을 지역 개발의 중요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으며 간판색의 정비와 같은 시민요구도 확산되고 있는 등 경관의 개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관형성은 관계성의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과 건물, 건물과 자연, 부분과 전체, 사람과 공간, 중심과 부근 등 각각의 관계를 정립하는 속에 지역과 색채가 파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든 것이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되고 도시전체의 구조관계를 고려하여 화려한 거리, 즐거운 거리 등 각각의 역할에 맞추어 공간의 색채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7가지 디자인 행위가 요구된다.

1. 지도를 펴고 경관의 축을 그려나간다.
2.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해한다.
3. 거리와 구역마다의 특성을 이해한다.
4. 자연과 역사, 현재도시의 특성으로부터 시작한다.
5. 주요색을 추출한다. (기조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6. 배색의 룰을 정하고 디자인에 적용한다.
7. 관리의 룰을 정하고 조직의 룰을 갖춘다.

도시경관색채를 디자인하는 목적은 조화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에 있다. 조화로운 도시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갖춘 도시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과 부분이 관계성을 갖고 불협화음이 없으며, 서로 어울려서 그 시각 환경의 색채가 그 공간을 살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쾌적함을 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그럼 이러한 조화로운 도시 색채를 만들기 위한 도시의 색채특성은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지 <그림4, 5>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요소 | 조사방법 |
|-------------|---|--|
| 공간적 요소 | 인공색-전통색 : 전통 건축물의 외벽, 지붕, 기둥, 창 등의 주조색 -현대색 : 주택지, 상가, 오피스 가 등의 현재 도시문화를 대표 하는 대규모건축물, 시설, 스트리트 퍼니처 등의 색채 -미래색 : 지역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의미의 지향색 | 실태조사-관찰조사 관련조사 양케이트조사 사진촬영 추색조사 |
| | 자연색-기후 : 습도, 바람 -풍토 : 토양, 수목, 하늘, 물 -관습 : 문화풍습의 색채 | 통계조사-선호색조사 문헌조사 인터뷰조사 추색조사 관련조사 |
| | 시간적 요소 | 계절, 주야 등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색채 이미지의 변화(중요지점의 계절별 관찰) |
| 사회문화적 요소 | 종교, 문화의식 언어, 의상 사회적 상징, 이미지 | 문헌조사 실태조사-추색조사 |

<그림4> 경관색채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그럼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통해 도시의 경관색채를 디자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림5>를 통해 알아보자.

| | | | | | |
|-------------------------------|----------|------------------|---|---|----------------------|
| 공공디자인 생태적 적용범위 -유형공간 |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 공공구조물 | 공공건축물 공공 주차시설 등 교도 교각 타설 육교 환경관선시설 스타트 파커 세인 등 | 주요별과 도시구조 | 생명색 |
| | 랜드마크 | 캐피트 상징물 | 지역의 랜드마크 및 경제 표시 : 톨게이트 구경표 표시 대리 표시 등 지역의 상징 조형물, 캐피트, 로고, D 등 | 주요별과 거리 공간 | 생명색 |
| | 공공장소 | 거리 및 광장 주요 거리 | 시 및 재개발 중심 거리 및 광장 : 주요 관광거리 및 광장 상징거리 등 역 주변 상권, 자연적 흐름의 주요 발원지점의 장소 공간 | 주요별과 거리 공간 | 생명색 |
| | 생활·문화 공간 | 이외 공간 기능-시설 | 공원 놀이터, 산책로 등 문화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 공원 체육시설 | 생명색 |
| | 대중교통 | 교통수단 교통시설 |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 역 타설, 정류장 등 교통 및 교통 / 호환의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장소 | 대중교통 노선 교통 | 생명색 |
| | | 무형공간 | 문화축제 교육태도 의상 | 시각적 문화축제 및 공공 이벤트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경관색채 방향에 맞추어 진행 공공장소의 내벽, 교육 재료 등 지역 이미지를 반영 하여 경관의 일부로 파악 | 이미지 인식도 생활속의 색채문화 |

<그림5> 도시경관 색채디자인의 적용범위 8)

이에 국내 도시를 비롯한 경관의 색채디자인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① 기준의 작성 ② 개성적인 도시경관색채의 고려 ③ 구체적 방법론의 대안 제시 ④ 연속성과 통일성의 배려 ⑤ 주민참여의 배려가 필요하고 여기에 현시대의 공간과 사람에 맞는 적합한 색채정비의 방향을 전문가 행정, 시민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외국의 색채디자인을 우리 도시에 적용하기보다 각각의 도시에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는 개성적인 디자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랑크로의 색채디자인 :Jean Philippe Lenclos -국제출판사 (1996. 9)
- 2) 색채조화의 성립조건 : (재) 일본 색채 연구소
- 3) 백승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 전략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 The design NET 2006. 04 Vol.103
- 5) DESIGN NET3 2007. 03 Vol.114
- 6) DESIGN NET4 2007. 04 Vol.115
- 7) DESIGN NET5 2007. 05 Vol.116
- 8) DESIGN NET6 2007. 06 Vol.117
- 9) <http://www.naver.com>
- 8) DESIGN NET 2007. 06 Vol.117 pp.91~93